문화특집 '91 신춘문예 평가

작가자격증 부여에만 그친 등용문

—— 7대 중앙일간지 소설부문 당선작을 중심으로

문단의 신인 등용문으로서 신춘문예는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20년대 초반 일제 치하의 암흑기에, 각 신문사들이 젊은이들의 문필활동을 촉진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으니, 장장 70년이 가까운 연륜에 이른 셈이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신춘문예가 신인발굴의 역할을 가장 광범위하게 담당하고 있음은 옛날과 별반 다름이 없다.

물론 문예지의 추천이나 작품집의 전작출간으로 등단하는 사례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그리고 신춘문예가 그 자체로서 안고있는 단처들에 대한 인식이 점진적으로 누적되면서, 이 유서 깊은 제도의 권위와 효용성이 적지않은 도전을 받고 있음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 명성, 전파력의 넓이, 일정한 상금 등이 여전히 문학청년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데 한몫을 거들고 있다.

신춘문예가 표방하는 특징적인 성격가운데에는 세월의 경과와 더불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전자를 세대론, 후자를 정석론이라는 이름으로 호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세대론이란 새로운 세대의 문단진입을 말한다. 성서나 헤밍웨이 소설의 한 구절을 통해 볼 수 있듯이,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온다.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시대의 정신이나 풍조를 그들의 작품에 반영하게 마련이며, 이와같은 일의 작은 물줄기가 모여서 큰 시내나 강을 이루게 되면 이른바 문예사조라는 것이 형성된다.

이 물갈이 작업에 힘입어 문학은 미지의 영역을 개간하고 과거와는 다른 모양새의 집을 짓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한때에 유행에 그치고 마는 수도 있고, 문학사에서 유의미한 전환점으로 기능하는 수도 있다.

정석론이란 신춘문예 당선자들의 입지가 아마추어에서 프로 문인으로 넘어가는 길의 들머리에 위치한다는 평가와 관련되어 있다. 그들에게 원숙한 문학적 세계관이나 형식적 세련미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기성 문인이란 자격을 허여할 수 있을 만큼은 기본적인 내면 및 외형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이다.

대다수의 심사위원들은, 그래서 메시지의 선명함과 이를 담는 그릇의 온전함을 심사기준의 맨 오른편으로 내세운다. 안정감과 설득력이 있는 문체가 일차적인 심사대상이 되는 것도 이 대목이다. 요컨대 내용과 형식의 조화로운 결합이라는 저 고색창연한 명제를 쉽사리 도외시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두가닥의 상관관계를 아울러서 신춘문예는 항상 신인다운 패기와 그것을 작품속에 잘 갈무리하는 균형감각을 요구한다. 내용이 역사적 사회적 쟁점에 접근한 것이든 내면적 존재론적 의식을 탐색한 것이든, 거기에 기존의 문학에서 흔하지 않은 참신한 관점이 게재되어 있기를 바란다.

또한 이를 수용하는 도구로서 인물의 설정이나 구성기법의 활용과 같은 형틀이 제대로 짜여져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상기와 같은 내외의 요건들에 치중한 나머지 자칫 우등생의 모범답안 같은 작품을 만들어 냄으로써 자연스러운 감응력의 확보라는 소출을 놓치기 쉽다는 점이다.

작품 자체의 논리로써 우리의 공감대를 두드리며 감동의 울림과 여운을 남기는 당선작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대개 그 신인의 장래에 기대를 걸게 된다.

지금까지 논거한 신춘문예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올해에 등장한 신인들의 작품은 어떠한가, 지면관계상 여기서는 중앙 7대 일간지에 당선된 소설 7편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김찬기의 "애기 소나무"(세계일보)와 김소진의 "쥐잡기"(경향신문)는 두 작품이 모두 동시대의 부정적인 면모를 바라보는 사회의식과 우울한 가족사를 결부시키고 있다.

모범답안식 심사기준, 시대정신반영의 장애물

新 문예사조 수용할 작품 선정의 폭 넓혀야

"애기 소나무"에 나오는 화자의 삼촌은 대학에서 운동권의 그림을 그리는 일로부터 출발하여, 현실과 예술 사이의 간극을 넘어서지 못한 채 파멸하고 만다. 그의 죽음과 이장에 이르도록 그 상처를 함께 견뎌야 하는 아버지와 할머니의 캐릭터도 효율적으로 그려져 있다. 다만 사건의 핵심인 삼촌의 고통스러움이 보다 분명한 정체로 드러났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쥐잡기"는 함경도 태생이자 포로수용소 출신으로 남쪽을 선택한 아버지를 통해 분단모순의 한 자락을 걷어 올리면서, 아버지에서 화자인 아들에까지 한 맥락으로 연결되어 있는 쥐잡기라는 행위를 곤궁한 삶의 실상으로 대체한다. 크게 흠잡을 데 없는 작품이긴 하나, 화자의 쥐잡기가 아버지의 쥐잡기로부터 한걸음 더 앞으로 내딛어지지 못함으로써 조밀한 구조적 짜임새에 묶여있는 느낌이다.

이 두 작품에는 동시대의 사회의식을 보다 날카롭게 표출하거나 한 가족의 공동체적 유대감을 더욱 증폭하거나 하여, 주주제와 부주제를 분리하였으면 하는 미진함이 있다. 산술적인 모범답안은 결코 문학의 모범답안이 아닌 까닭이다.

윤이나의 "눈오는 날"(서울신문)과 최임순의 "외출"(조선일보)은 세태소설의 범주에 드는 작품이다. 80년대 양귀자나 박영한의 작품이 크게 언성을 높이는 법이 없이도 세상살이의 진솔성과 핍진성을 미세하게 포착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면, 이들의 뒷그림이 한결 명료해 진다.

"눈오는 날"은 허풍쟁이 남편과 사위, 그리고 마음에 차지않는 두 딸의 일가족을 거느리고 있는 보험회사 소장할머니의 관점에 의거해 있다. 어느 날 눈이 내리고, 이 마땅찮은 가족구성원들에 대한 실망감이, 과거의 회상과 더불어 따뜻한 온기로 환치되는 산뜻한 마무리를 볼 수 있다. 사뭇 감동적인 뒷맛이 남는 작품이지만, 그 환치의 계기가 너무 평면적이어서 이러한 부류의 소설이 가진 한계를 상기하게 한다.

"외출"은 출산휴가를 마친 한 여교사가 일년만에 학교에 복직하여 두가지의 변화와 마주서는 스토리이다. 하나는 교원노조운동에 앞장섰던 이은경선생의 부재이고, 다른 하나는 가문의 내력으로 인하여 소극적이고 회의적인 입장에 있던 박상준선생의 부재이다. 화자의 시선은 후자의 부재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으나, 그것은 직접적인 체험의 부딪침이 아니라 풍문에 의존한 사태파악과 추론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외출"이 박상준선생의 정신적 통증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지 못한 것이나, "눈오는 날"이 범상한 감동의 관리에 그친 것은, 지적하자면 패기있는 주제에 육박하지 못하고 작품의 모양만들기에 주력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강금희의 "천국에서의 하루"(중앙일보)와 정윤우의 "아내의 행방불명에 대하여"(동아일보)는, 앞서의 작품들과 달리 의식의 내면을 집요하게 관찰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천국에서의 하루"는 고아원 출신의 아내가 불분명한 사유로 역사선생이었던 남편이 가출한 다음에 알콜중독에 가까울 만큼 술로 스스로를 달래는 내용이다. 치유의 방법이 모두 차단된 상황에서 탈진한 의식의 움직임이 잘 그려져 있으나, 그것이 상처뿐인 내면세계를 그대로 서술한 것 이상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아내의 행방불명에 대하여"는 신혼초의 남편과 아내의 시점을 교차하여 사용하면서, 그들의 일상적인 삶 심층에 깔려있는 서로 다른 궤도의 지향점과 그 편차를 소설의 표면으로 밀어 올렸다. 그러나 그 이질성의 실상이 무엇인지는 그렇게 분명하지 않다.

신춘문예에 의식세계의 굴곡을 추적한 작품이 선정되기란 기실 쉽지 않은 일인데, 그 배면에는 90년대로 넘어오면서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다양성의 미덕을 수긍하기 시작한 문학의 동향이 마련되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윤명혜의 "개마고원"(한국일보)은 반유토피아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아내의 행방불명에 대하여"에서도 일상화 된 컴퓨터의 활용을 볼 수 있었지만, 모든 것이 기계로 통제되는 시대에 오랜 과거의 흔적인 개마고원이 돌출되고 그와 함께 분단비극의 한 단초를 떠올리는 작품이다. 매우 특이한 소재이기는 하나 영상문자와 인쇄문자의 대비 정도에 신선감이 있을 뿐, 첨단기술과 분단문제 사이에는 힘있는 거멀못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들 7편의 소설을 두루 검토해 보자면, 신춘문예의 변화하는 속성과 불변하는 속성이 여전히 단단한 그루터기처럼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분단 모순이나 계급모순에 대한 첨예한 시대정신이 다양성의 포괄적인 그물 속으로 후퇴했다든지, 의식의 숨은 부피나 컴퓨터 등의 새로운 기기들이 중요한 소재로 도입됐다든지 하는 수준의 변모가 고작이라 할 것이다. 결국 신춘문예는 늘 그래왔듯이, 당신자들에게 이제 작품을 써도 좋다는 자격증과 한 세대의 목소리를 가치있는 것으로 정착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여하는 통과제의일 뿐이다.

김 종 회

〈문학평론가 · 문리대 강사〉

참고 열람실

사회민주주의

P·T독재 배격한 수정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란 마르크스주의의 혁명방식(폭력혁명)과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방식을 부정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통하여 사회주의 사회를 구현하려는 사상을 말한다. 달리 말하면 국가권력의 중심을 의회로 보고, 민주주의적인 방법을 통해 의회의 실권을 장악함으로써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사상이다.

넓은 개념으로서의 사회민주주의는 좁은 의미의 사회민주주의와 영국노동당의 이데올로기로 표현되는 민주사회주의를 포함한다. 양자의 공통된 특징은 폭력혁명,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배격하고 합법적인 의회주의 내지 사회개량주의를 통해 평화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점진주의를 지향하는 데 있다.

제1차 대전 이전의 사회민주주의는 마르크스주의라는 뜻으로 쓰였으나 제1차세계대전을 계기로 서구라파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러시아를 제외하고 전쟁협력에 가담하게 되었고 마르크스 혁명방식을 거부하게 되었다. 특히 1919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3인터내셔널(Comintern)즉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이 성립된 이래로 사회민주주의로서의 마르크스주의와 공산주의로서의 마르크스주의(마르크스-레닌주의)가 분열, 대립하였다. 양자의 대립은 주로 자본주의의 성장단계, 민주주의의 정치풍토, 민족성격의 특이성, 대자본주의관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라파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도처에서 집권을 하였지만 이들은 본래의 평등주의적인 입장에서 능력본위의 입장으로 기울어졌으며 이는 사회주의의 목표인 평등사회의 실현 혹은 생산성의 제고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여유있게 되어야 한다는 입장과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의 진전인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있어서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근본적인 정체성(Identity)의 문제가 제기되는 데, 그것은 이들의 목표가 과연 자본주의에 기반을 둔 사회체제의 변경인가, 아니면 이것의 존속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여하튼 사회민주주의는 급진적인 마르크스주의에 대해 베른슈타인(Eduard Bernstein)이 제안한 수정주의 입장을 받아들여 폭력혁명과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배격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통한 점진적인 사회개혁을 지향하는 사상으로 볼 수 있다.

이 시 형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연구원〉

졸업생투고 —나의 역사 인식

"가치 중립적 역사학이란 없다"

정확한 현실인식으로 관변사학 극복해야

'가치중립적인 역사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다분히 역사에 있어서 주관과 객관의 문제와 그 비중도뿐만아니라 당파성에 대한 문제까지도 포괄한다. 더구나 역사연구는 현실에 토대를 두고 전개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 활동이기에 우리나라에서의 역사학도 예외없이 현실의 역사운동, 그리고 이데올로기투쟁의 일부로서 현실속에 존재한다.

본고는 우리역사의 근대 문제를 중점으로 하여 풀어가고자 한다. 역사시기 3분법에 입각한 고대, 중세, 근대의 개념은 근대 자본주의국가의 성립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서양사의 경우 봉건사회의 해체 및 근대사회의 성립의 기본선은 고전장원의 해체, 봉건적 토지소유의 해체(화폐거래의 일반적 성립), 메뉴팩처의 전개라는 3가지 기본범주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는 자본주의의 세계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또한 근대의 기점의 문제이며 선진(고전적) 자본주의 성립의 경우이고 후발 자본주의 국가의 경우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사회를 경유한 제3세계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나라 근대의 문제는 보다 더 심각한, 그리고 복잡다양한 전개양상을 보인다.

우리의 경우, 19C중엽이후의 서양 자본주의의 동점과 아울러 1860년대에 이미 일본에서의 정한론이 대두되어 경제적 침략에 이은 완전식민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로써 19C후반이래 우리의 역사적 과제는 반제와 반봉건이라는 기본선이 성립되며 해방공간 이후로도 민족통일과 민주화라는 것으로 그 기본선이 현재까지 유지된다.

모든 현실은 역사적 현실이기에 우리가 갖는 이 근대의 문제는 그 논의의 실마리를 19C중엽이래의 각 변혁운동에서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두루 알듯이 19C중엽이래 당면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조류가 있었다.

그중 농민운동은 비자본주의적 노선으로 상정할 수 있는 농민적 코스의 변혁 노선이며, 항일무장투쟁의 원동력으로 볼수 있다. 19C후반이래 식민지시기까지의 변혁노선을 살펴본 바 농민적 코스에 입각한 변혁노선이 가장 주요하고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가장 타당한 변혁노선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계급문제와 민족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는 성질로 그 선후의 논의는 무용하다고 보여지며, 가장 타당한 변혁노선을 상정함과 동시에 계급과 민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망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또한 여기서 근대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방공간(1945~1953)이후로도 신식민지적 국가형태를 유지함으로써 근대의 문제는 바로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해방3년사, 이 시기는 남북간, 좌우간의 정치갈등과 변혁노선의 상이, 미군정에 대한 평가등에 상당한 혼전의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남북한 모두 양 제국주의세력에 밀착한 괴뢰정권을 창출하므로써 오늘의 분단구조를 확정시켰던 것이다. 더구나 농지개혁은 자본가 및 일부지주층에 유리한 입법을 실현하므로써 당시 산업의 근간인 농업분야에 있어서조차 봉건성을 탈각시키지 못하고 현재까지, 특히 의식구조적인 인식에 있어서 봉건성의 잔존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한국사학을 이데올로기적 지향에 따른 사학방법론을 기준으로 하여 몇개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관변 · 군변의 역사학 연구의 대표기관으로써 정문연, 국편위, 독립기념관 등이 있으며 연구자는 관료 · 학문외적 관제 이데올로기를 수용하는 실증적 연구자들이다.

둘째, 재야사학으로 한말 이후 민족주의사학의 반동적 전화물이며 파시즘민족주의와 전근대적 연구방법론, 대중적 서술의 결합형태이다. 군부사학인식의 근간이 되며 일부 사이비 민족종교와도 결합된다.

세째, 신실증주의사학으로 세계부르조아 사학의 대세를 이룬다. 사회와 단절을 유지하며 '순수문학'의 기치를 표방하고 기본적으로도 '귀납만능론'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네째, 강단의 진보적 사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실에 대한 파악이 가장 기본적인 역사인식의 출발점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현단계에서 반제반파쇼사학으로서의 민중사학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여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민중운동에 역사연구자들이 교육을 통하여 동참하고 봉사하며 투쟁하는 역사학이며, 역사를 과학적 변혁이론에 입각하여 분석 · 설명하는 사학이면서 동시에 인간과 역사와 사회를 적극적으로 변혁하는 사학이라 하겠다.

근대 국사학에 있어서의 최대성과는 역시 사회경제사학의 성과라 하겠다. 그러나 사회경제사적인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성체적인 시각에서 볼때의 이데올로기적인 해명은 제대로 되고있지 못한 듯 하다. 이에 사회사상사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이는 앞서 언급한 역사학의 이데올로기활동의 적극적인 개진이라 하겠다. 기존의 이데올로기 지형이 오늘의 분단문제와 제국주의, 파쇼체제를 붕괴시키고 민주화를 향한 건설적 방향을 위하여 지각변동을 경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기실 체제 또는 통치메카니즘은 물상화의 진전이라고 하는 '근대적 지대의 생성' 이후, 한 개인의 저항이나 전 민중의 투쟁조차도 매몰시킬 위험을 갖고 있는 거대한 조직체계일 수 있다고 보는 패배주의적 시각도 상당히 만연되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는 결코 소망스럽거나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이다.

앞서 우리는 현시기 한국사회의 성격과 근대의 문제, 그리고 현단계 한국 역사학계(특히 국사학계)의 과제를 소략하게나마 살펴보았다. 이제 유난히 높은 하늘아래 키작아 보이는 학부4년도 지려한다. 그러나 이러한 마무리글에 정말 그간 깊이있는 철학이 있었으면 좋은 글이 나올 법도 한데 별반 이렇다할 의견을 개진하지 못한 게 부끄럽다.

다른 인문사회과학 분야와 비교할 때 사학의 강점은 문제에 대한 단선적 시각이 아닌 장기적 시각에서의 근원적 고찰이 가능하다는 점일 것이다. 박범신은 짧은 자전적 소설에서 문학, 목매달고 죽어도 좋을 나무라고 했다.

그러나 역사 그것은 '목매달고 죽어도 좋을 나무의 뿌리'가 아닐까?

허 홍 범

〈사학 · 4〉

교육부정책 : 듣기평가 도입 벙어리영어 탈피선언

듣을 수 없으면 말할 수도 없다

20년 강의의 결정체 국내 최초 Listening 교재탄생!

영어회화의 지름길은 김철호영어강좌 3-Step Program으로

- 미국인의 발음식별능력과 청취력의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 대화를 못알아 듣는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배우기 쉽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 음성학적으로 연구분석 훈련시켜 과학적이고 획기적인 발음교정이 됩니다.
- 생활회화 문법위주에서 과감하게 탈피한 생동감과 박진감이 있는 교재입니다.
- 첫 TAPE 듣는 즉시 학습효과가 나타나며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 영어의 감을 느끼며 미국인과 똑같은 속도로 말할 수 있는 실력이 배양됩니다.
- 영어회화에 짜릿한 재미를 느끼며 AFKN이 저절로 들리며 이해가 쉽게 됩니다.
- TAPE와 교본을 분리해서 학습할 수 있는 잇점이 있어 매우 편리한 교재입니다.
- 저자는 20년간 영어 명문학원에서의 강의와 일류대학 TOEFL. LC강의와 대기업 사원연수 교육을 통한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한 특징이 있는 순수 창작교재입니다.
- 외국인이 만든 교재보다 생동감이 더하며 짜릿한 실감을 느끼며 영어회화에 나도 모르게 재미를 느껴집니다.

이런 분들은 즉시 전화주십시오.

- 현재 학원에서 수강중이나 영어에 감을 느끼지 못하여 영어가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계시는 분
- 말은 좀하는데 Listening이 안되시는 분
- 현재 다른 TAPE로 공부중인 분은 김철호 영어강좌를 겸하며 세련된 스피킹을 빨리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 TOEFL. L. C를 학습하는 대학생이나 TOEFL I. C의 고득점을 노리는 분
- 해외여행이나 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분
- 영어듣기나 발음 교정지도에 고민하는 선생님들
- 영어발음이 나빠서 고민하시는 분
- 기초가 없어 영어회화 학습을 포기한 분

Orientation 금주토요일 오후3시 인성언어문화원연수실 무료공개강의

※외국인의 번역교재 TAPE나 학원수강으로도 영어회화 실패한 분들은 꼭 참석바랍니다

TAPE 33개 교본 11권 컬러판6판

김철호영어강좌 내용과 구성

단계	교 재 명	내 용	교본	TAPE
I	Listening Drill	듣기 기본능력 배양 발음청취 요령	1	2
II	Listening · Focus	본강좌의 핵심 영어와 우리말의 음운법칙 분석	1	10
III	Whaddaya Say	미국인의 발음이 안들리는 원인분석	1	5
IV	AFKN 듣기요령	AFKN 시청을 위한 훈련대책	1	6
V	Daily English	일상생활 영어의 구체표현	1	4
VI	만화	미국만화 6권 직수입 원색칼라 고급모조	6	6

김철호영어강좌 저자소개

- 1970년 국내최초로 AFKN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 각종 국제회의에서 동시통역사로 임했습니다
- 현재 한국통역번역 대표이사 역임
- 주식회사 한통무역상사 대표이사 역임
- 시사영어학원에서 AFKN. TOEFL. LC 명강의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사회교육단체 분야에서 1990년 4월 26일 문교부장관상 수상

◎자매품 : Telephone English 전화영어의 모든 것 세계를 향해 열려있는 Telephone은 국경이 없습니다. (교재1권 TAPE 8개)

◎전화나 엽서 보내주시면 견본1권과 TAPE 1개 무료 우송해드립니다.

주문처 상담실 : 859-3611

仁成言語文化院

주소 : 서울 구로구 구로5동 111-12호 인성B/D

서울본사 : 859-1901~4 부산 : 44-8353~9 대구 : 953-2370 인천(032)514-8626 대전 : 625-0916

개 강 3월 4일

영어·일어
러시아어
TOEFL600
GRE2000
GMAT700

종각옆 · 종로2가 · 734-2442

시사영어학원

정성을 다해 마련한 봄강좌에 여러분을 招待합니다.

봄강좌 3월 첫주개강 3개월과정 · 신규회원 입회비 1만원 별도

小說創作	李浩哲 (小說家)	水 18:30~20:30 50,000원	삶속의 감동과 우리의 이야기들을 소설로 꾸며보도록 하는 창작지도.
詩作法	李昇薰 (詩人, 漢陽大 교수)	金 19:00~21:00 50,000원	문득 떠오르는 한가닥의 靈感을 감아 어떻게 詩語로 표출해 낼 수 있는가의 詩作강의.
집지편집론	이준교 (中央경제체육부장)	木 19:00~21:00 50,000원	각종 잡지의 편집, 디자인, 제작 편집술 특강.
카피라이터입문	이만재 (카피과학대표)	月 19:00~21:00 100,000원	고소득, 창조적 전문직으로 각광받는 카피라이터의 세계에 입문하는 길을 체계적이론과 실습을 통해 제시.
정보활용법	윤은기 (경영정보전략연구소장)	水 19:00~21:00 50,000원	정보를 활용하여 성공하는 법, 정보의 수집, 분석 활용등 생활정보에서 기업정보까지 이론과 사례를 소개. 정보맨이 될수 있도록 지도.
과학적속독	박화영 (서원대 교수)	土 16:00~17:30 45,000원	SUPER READING은 독서시간의 단축뿐만 아니라 고도의 정신집중 및 이해력향상을 가능케 해준다.
방송작가교실	허환 (방송작가)	火 19:00~21:00 50,000원	TV · 라디오 드라마作家 · 방송스크립터 등의 방송작가 入門을 희망하는 이들의 기본수업 과정
플루트	이선희 (플루트연주자)	金 19:00~21:00 60,000원	플루트의 맑고 환상적인 선율을 누구나 쉽게 연주할 수 있도록 지도.
클라리넷	문정모 (서울팝스오케스트라)	水 19:00~21:00 70,000원	개성있고 우아한 연주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 개설된 클라리넷 연주특강.
카메라 A	金漢鎬 (사진작가)	金 14:00~16:00 50,000원	초보자들에게 필요한 사진기의 원리 · 촬영 요령부터 暗室실습을 통한 인화작업까지 쉽게 배운다.
카메라 B	〃	金 19:00~21:00 50,000원	
일요카메라	최순환 (사진작가)	日 14:00~16:00 50,000원	카메라의 구조, 촬영기법, 현상 등 촬영전반을 배우며 야외촬영실습도 병행한다.
易學	安重宣 (천기누설저자)	月 14:00~16:00 50,000원	철학 · 미신으로만 알고있는 역학, 그러나 그 안에는 동양철학의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다. 기초부터 재미있게 강의.
레크리에이션강습	김영광 (대한레크레이션연구실장)	木 19:00~21:00 50,000원	레크리에이션의 일반이론을 비롯해서 각종 게임, 율동게임등, 포크댄스, 유머퀴즈 등을 지도.
마술아카데미	정은선 (여류마술가)	水 19:00~21:00 50,000원	직장이나 가정의 모임, 데이트 등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마술을 국내 유일의 여류 마술가가 지도.
러시아어	김록양 (外大)	火·金 19:00~21:00 4개월 150,000원	동구권의 교류확대로 활용도가 더욱 높아진 러시아어의 문법 및 회화지도
이태리어	이현경 (文化센터강사)	月·木·金 19:00~21:00 150,000원	성악, 회화, 조각, 의상, 건축분야의 이태리 유학직망생들을 대상으로 유학의 실패를 피우하는 어학강좌
중국어	방미화 (화교학교)	金 19:00~21:00 50,000원	중국어(북경어)의 기초와 간단한 회화를 중심으로 지도한다.
氣功	안중선 (구룡도가장시자)	上 16:30~18:30 3개月 50,000원	우주는 氣에 의해 생성과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그중 생기를 흡수하여 인체의 활력을 주고 미용 및 건강을 증진시킨다.
태극권	종문학 (국술회국제연맹부주석)	金 19:00~21:00 3개月 45,000원	10억 중국인의 전통적인 건강체조인 태극권을 한국 최초로 보급.
재즈체조	김현정 (文化센터강사)	火·金 19:00~20:30 3개月 55,000원	재즈음악의 경쾌한 리듬에 맞추어 하는 체조를 응용한 댄스.
일러스트레이션	강병돈 (산업미술가)	月·水 19:00~21:30 70,000원	시보담당자 · 출판기자 등을 위한 집중적인 이론 · 실기수업.
누드크로키	장영주 (서양화가)	火 18:30~21:00 80,000원(모델료포함)	小宇宙인 人體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느끼고 직접 표현할 수 있는 놀랬 배양.
감정평가사(이론)	허장식 (감정평가사)	月 19:00~21:00 75,000원	감정평가사 시험을 대비하여 감정평가이론을 기초부터 체계적 입체적으로 재정립하고, 응용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기른다.
(실무)	이경도 (감정평가사)	木 19:00~21:00 75,000원	실무의 기초이론과 실무문제의 핵심을 철저히 파악하고 우리나라 및 일본의 기존문제를 집중분석한다.

中央文化센터 서울 종로구 운니동 114 ☎ 744-4412

비원 현대건설앞 지하철 3호선 안국역